

적절한 치과인력수급대책 통해

글/편집국

치과의사의 인력수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문제의 근간에는 치과대학이 연계돼 있으며 그것은 치대가 바로 치과의사를 배출해 내는 교육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치대신·증설은 치과계 입장에서 볼 때는 예민한 사안의 하나이며 적절한 인력수급조절이 실패했을 때는 한국치과계의 장래가 매우 불투명해 질 것이라는 예측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할 것이다.

90년대 들어

급격한 수적 팽창을 보이기 시작한 해외파들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심각성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러

하지만 치대신·증설이라는 국한된 부분을 놓고 볼 때 최근의 현실은 과연 이 상태로 지속된다면 올바른 인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최근 몇 년사이에 치대가 신설되고 증설된 사례가 없기는 하지만 치대를 신설하고 증설하기 위한 각 대학들의 노력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협을 중심으로 한 치과계는 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으로 어찌보면 해마다 치대를 만들려고 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필사의 힘을 쏟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는 상황이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당사자들이나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개원을 하고 있는 회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으로 그만큼 치과계로서도 치대신·증설이라는 문제는 실타래가 얽혀 있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는 데에 대부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국내치과대학의 현황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으로 11개 치과대학이 있다.

서울에 서울치대를 비롯한 3개 치대와 부산과 대구에 각각 1개교씩, 전북 및 전남에 각 2개 치대가 그리고 충남과 강원도 각 1개 치대씩 모두 11개 치대가 있으며 이 중에 강릉치대가 가장 최근인 92년에 설립됐다.

과거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치대는 4개대에 불과했으나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무려 6개의 치과대학이 신설돼 바야흐로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이 거론될 수 있는 기본토양이 조성됐다고 할 수 있겠다.

전체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7백60명.(표1 참조)

서울치대가 1백명으로 가장 많고 경희·조선·부산·원광치대가 각 80명, 전남·단국치대가 각 70명, 연세·경북치대 각 60명, 전북·강릉치대가 각 40명으로 돼 있다.

즉 해마다 국내치대출신자 8백여명 내외가 국시를 통해 평균 83~84% 정도가 치과의사 면허를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수칙으로도 불과 몇 년만 지나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과의사의 수적 팽창은 예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제 문제들이 파생될 소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호남의 경우 전남과 전북에 각각 2곳의 치과대학이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졸업생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 자신들의 연고지라 할 수 있는 현에서의 개원이 어려운 상황으로(인구, 치과의사의 포화 등) 많은 숫자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적으로도 호남지역 치대출신자들이 많이 분포돼

국민구강보건 책임져야

있다.

반면 영남지방의 사정은 이와는 전혀 판이하다. 현재 인구도 호남에 비해 월등히 많고 아직 경북과 경남지역에 각각 1군데씩의 치대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해당 지역 치대출신들 대부분은 현지에서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좁은 국내에서도 이같이 현격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 사례는 그저 단순히 스쳐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무분별하게 치대신·증설이 계속 추진되고 만약 성사된다면 치과계로서는 스스로의 살을 깎아 먹는 적자생존은 물론 국민구강보건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단순한 우려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현재 치대신·증설은 아예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기존의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국내도 향후 몇 년사이에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해외출신... 문제 더욱 얽혀

국내 치과의사 인력수급증가의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해외유학자들의 급증. 90년대 들어 급격한 수적 팽창을 보이기 시작한 해외파들은 치과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심각성은 우려의 차원을 넘어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지금부터 10년전까지만 해도 그 숫자는 서너명에 불과한 정도로 그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이나 주목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특정국가의 유학이 수월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유학생들이 국내 국가시험을 통해 대거 유입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으며 치과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해외유학 응시자 수의 최근 몇 년간의 증가추세를 살펴보면 보다 확연히 그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표2 참조)

88년 12명에 불과했던 응시인원이 89년 38명으로 대폭 증가하더니 93년에 이르러서는 1백명을 넘어섰고 증가추세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94년 1백82명, 95년 2백62명, 96년에 3백30명의 수준을 보이더니 97년에는 5백명에 거의 육박하는 4백76명으로 이는 80명 기준으로 할 때 국내에 치과대학이 6개가 신설되는 어마어마한 수치적인 효과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초래했다.

해외유학생들의 급증원인은 해마다 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는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그들의 합격률을 볼 때 최근 10여년간의 평균치가 25%가 채 못되고 있기 때문에 불합격자의 숫자가 누적되는 것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과거 91년도의 경우 다소 인위적인 방법인 국시를 예상과 달리 출제했을 때 국내 치대출신 학생들

**치과대학을
신증설하려는 각 대학들은
무엇 때문에 치과대학을
신설하려는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표 1. 전국 치과대학 입학정원 현황

학교명	입학정원	치과대학 개설일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100	1946. 8. 22
부산대학교 치과대학	80	1981. 3. 1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60	1979. 3. 1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70	1980. 10. 2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40	1980. 10. 2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80	1966. 12. 8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60	1967. 12. 4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80	1973. 12. 28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80	1980. 10. 2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70	1982. 10. 5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40	1992. 3. 1
계	760	

표 2.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도별 현황

연도	총 응시인원	합격인원 (국내외 포함)	해외유학 응시자수	유학합격인수	비고
1986	573	567(98.9%)	1		
1987	779	768(98.5%)	41	1(25.0%)	
1988	913	902(98.7%)	12	5(41.6%)	
1989	1,034	984(95.2%)	38	18(47.3%)	
1990	1,048	996(95.0%)	71(필리핀 69, 미국 1, 대만 1)	33(46.4%)(필리핀 32, 미국 1)	
1991	958	523(54.6%)	61(필리핀 57, 미국 3, 대만 1)	1(1.6%)(필리핀 1)	
1992	1,261	1,151(91.3%)	81(필리핀 75, 미국 4, 대만 2)	23(28.3%)(필리핀 18, 미국 4, 대만 1)	
1993	1,009	882(87.4%)	103(필리핀 101, 미국 2)	14(13.59%)(필리핀 12, 미국 2)	
1994	938	751(80.06%)	182(필리핀 176, 미국 6)	37(20.33%)(필리핀 35, 미국 2)	
1995	1,040	751(72.2%)	262(필리핀 253, 미국 9)	40(15.2%)(필리핀 38, 미국 2)	
	(국내 778)	(국내 711 : 91.5%)			
1996	1,095	684(62.4%)	330(필리핀 323, 미국 6, 일본 1)	25(7.5%)(필리핀 22, 미국 3)	필리핀치대 졸업자합격율6.8%
	(국내 765)	(국내 659 : 85.9%)			
1997	1,318	1,021(77.4%)	476(필리핀 467, 미국 8, 일본 1)	201(42.2%)(필리핀 195, 미국 5, 일본 1)	필리핀치대 졸업자합격율41.7%
	(국내 842)	(국내 820 : 97.3%)			
계	11,966	9,980(83.4%)	1,621	398(24.5%)	

도 합격률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유학생의 경우 67명 응시에 1명만이 합격하는 1.6%의 합격률을 보인 예에서도 그 해답은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

결국 이들 해외 유학생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는 것이 치과의사의 인력수급에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했고 치과계는 여러 방안을 통해 가시적인 결과도 얻어낸 바 있다.

향후 대책

치과의사의 인력수급 문제는 기존 치과의사들의 생존이라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면 이해나 해결은 요원해진다.

의료라는 것이 사람의 질병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인력수급도 그같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치과계는 여러 현실을 감안, 치대신·증설에는 반대한다는 보다 확실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구강보건을 책임질 수 있고 국가의 구강보전정

책에 기여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단순히 숫자를 양산해 내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치과대학을 신·증설하려는 각 대학들은 무엇 때문에 치과대학을 신설하려는지 그 이유의 타당성을 제시해야 하며 현 치과계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입지 향상을 위한다는 단순한 개념이라면 좀 더 대국적인 차원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들어가야 한다.

치협이나 치과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 치대신·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의료인력의 양성 또한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며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입증되고 있다.

아무리 사회가 세분화되고 모든 것이 자율화되어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사안이 전개된다면 결국 당사자들보다는 의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